

‘2006년 고문 초청간담회’ 개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7월 6일 17시 서울 팔레소호텔 12층 라일락홀에서 연합회 고문과 연합회 이상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고문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여해 준 고문을 비롯한 임원과 지역협의회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고문들의 고견 및 제안사항이 연합회 발전을 앞당기는 만큼 충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연합회의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연혁 및 사업 경과보고와 중·장기 중점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설명된 연합회의 주요 발자취 및 실적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2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첫시작으로 현재는 19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고, 매월마다 발행되는 월간지는 1986년 5월호부터 시작해 현재 2006년 7월호까지 한호도 결간없이 239호를 발간하여 꾸준히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988년에는 환경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환경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환경기술인을 비롯 환경관계인의 십시일반 기부로 현재까지 기금 1억 6천만원을 모금하였다.

연합회는 또 1989년 6월 ‘대한민국환경

관리장’ 시장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총 17회에 약 176명이 수상하였으며, 1991년에는 ‘환경관련학과 모범졸업생’ 시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15회 약 500명의 환경학도들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또 1995년 2월 오염물질 10% 줄이기 전진대회 개최, 1995년 6월 서울특별시 단체 표창, 1998년 6월 국무총리 표창, 2001년 5월 환경관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2001년도 9월 한국산업기술협회와 공동주최로 환경기술인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강좌 개설, 2002년 5월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및 환경기술인으로 명칭, 제호를 변경하였다.

이밖에 2004년 2월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명칭변경, 2004년 3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2004년 1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받기도 했다.

특히, 2005년 2월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환경단체장 및 기술인 등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환경기술인의 날’을 제정·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해 10월 10일에는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또, 금년 2월에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창립20주년 기념식’과 ‘환경기술인 20년사’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연합회의 중·장기 중점사업계획으로는 환경인회관 건립,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부설기관 설립(가칭 한국환경기술교육원), 환경관련



전문교육 기관 지정 및 육성, 환경기술인 경력인증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각종 기술세미나 및 전시회,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환경정책의 신속한 전달과 의견을 취합하여 관계기관에 반영되도록 행사를 추진해 왔다. 금년에도 이의 일환으로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환경공무원을 비롯 학계 환경산업계 등 환경관계인을 초청하여 '환경부 정책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접수중에 있다. **(관련기사 7쪽 참조)**

연합회의 고문은 권숙표 박사를 비롯 소위 환경 1세대라고 불리는

환경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노용희 고문, 노재식 고문, 박노경 고문, 이승무 고문, 박창근 고문, 김동민 고문, 이용근 고문, 윤명조 고문, 김동윤 고문만 참석하여 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과의 연합회의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하며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초청고문들의 연합회 발전방안 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용희 고문

환경기술인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은 물론 CEO와의 대화를 통해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게 길을 모색해야 한다. CEO의 생각이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에 영향을 주므로 기술인은 자기성찰과 꾸준한 노력으로 회사에 기여해야 한다. 연합회에서도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 기술인들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재식 고문

창립 이래 어려움 속에서도 연합회가 크게 발전이 돼서 기쁘다. 국내에만 미치지 말고 환경기술인 및 환경 공무원, 학회 관계자들을 해외로 연수파견 시켜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이해하게 한 다음, 귀국후 결과 보고 제출로 끝내지 말고 관련 전문인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사업종에 기술을 유료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이승무 고문

연합회의 설립 목적 중에 환경기술인들의 '권익향상'을 이젠 '기술향상'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 연합회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연합회에서 가져오긴 힘이 들 것 같으나 노력해 볼만 하다. 환경관련 전문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연합회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창근 고문

환경인회관에 이름남기기 운동을 현재까지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기금모금이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기금 모으는데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까지 모인 금액으로 2층 건물을 매입 한 후에 1층은 환경관련 상설 전시장으로, 2층은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박노경 고문

‘월간 ‘환경기술인’ 지의 권두언이란 꼭지명으로 1페이지에 여러 회원이 기고를 해서 다양한 글들을 보게 돼서 좋았다. 웰빙 등의 우리 일상생활에 유익한 글, 필요한 글들을 게재해서 딱딱한 잡지에서 벗어나게 돼 안정감이 있었다. 반면에 콘텐츠가 획일적이라서 식상함을 느낀다. 다양한 기획특집 및 취재글이 부족하여 아쉬웠고, 글을 게재할 경우에는 질의자와 답변자 및 정리한 이의 성명을 꼭 밝혀줘야하는게 원칙이다. 특히 월간지에 오타가 나와서는 안된다. 편집회의를 하던지,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이틀만 채용하면 될 듯 싶다. 또한, 연합회 월간지는 기관지를 벗어나 대내외적인 단결을 유도하고, 압력 행사를 하여 기술인들의 위상·권익보호를 위해 힘을 가질 수 있는 월간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원들이 읽고 싶은, 읽기 쉬운, 꼭 필요한 월간지를 만들어야만 한다. 월간 ‘환경기술인’ 지를 읽지 않으면 환경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정보와 환경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되도록 더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동민 고문

네트워크 시대인 만큼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본 등 환경선진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회관건물을 현재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며,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건물을 매입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의 특성을 살려 대국민참여 사업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모금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른 방안을 찾는다면 연합회와 비슷한 환경단체를 섭외해 기금을 공동 모금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다. 월간지는 현장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부족하다. 현실에 맞는 매체의 월간지가 됐으면 한다.



김동윤 고문

회원들과의 이해관계를 유도하여 유지를 잘 해야 한다. 대기업과 연계하여 상호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 타단체와 협조하여 회관건립 기금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야 한다. 환경기술경력인증시스템 구축에 좀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적절한 단체나 학회와 공동 조직체를 결성하면 보다 큰 연합회로 나갈 수 있다. 특히 대학교수 집단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다.



윤명조 고문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 내용으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맘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용자를 끼고 건물을 사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도 있겠다. 연합회 브랜드 이미지를 높으려면 정치계와도 연계하여 간담회때 환노 위소속 국회의원을 동석시켜서 환경기술인들의 애로점 등을 건의하여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